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올해 농사에서 비약을

다수 확실현의 열쇠를 확고히 틀어쥐고

김 일 성 종 합 대 학 생 명 과 학 부에 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同志합대화는 과학 연구사업을 훨씬 있게 벌리며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는데 선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의 과학자들이 연구한 고농도원, 카리부합영양액이 농작물의 생육이 저하되고 소출이 높아지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가물과 낮은 온도, 열기를 비

롯한 불쾌한 환경요인에 대처할

지향성이 강화되어 작물들의

생육이 저하되고 소출이 높아

지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가물이 지속되는 온씨의 불

리한 일기 조건에서도 이 복합

영양액으로 저어 농작물을

온 그 영향을 적게 받았다는

것이 주목할만 하였다. 재령군의 한 일꾼은 작물의 및 합성능

액이 크게 향상되는 것인 장마

철이면 더욱 뛰어난다니라

고 하면서 장마철 합성강화

제품은 아주 효과적이라고 말

하였다.

이처럼 각자의 농업부문 일

군들과 서로 다른 부문에서 한결

같은 호령을 달고 있는 새로운

복합영양액은 박사 부교수 엄

기 수동 무관 한길성과

가지 다양 및 미량소와 빛 및

성촉진물질이 균형적으로 조

합되었다.

새로운 복합영양액을 도입한

농업부문 일군들의 말을 들

어보면 린영양에 대하여 아주

예민한 강냉이는 그것으로 종

자체비만 하여도 고농도원

을 500~1,000 kg 이상 더

낼 수 있었다고 한다. 도입후부

터벼와 강냉이를 비롯한 알부

작물과 남새싹작물의 빛 합성속

도와 생리적 기능이 높아지고

기능을 더하고 있다.

이들은 농사에서 절소비로

예방 및 관리하는 데 어려움

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들은 아무리 해

도 일수 없을 것이라면 다른 나

가지 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사람들의 거만한 고대를 보

자체의 기술력 향에 의거하여

증산군 농기계 작업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기계장장에서 설비와 생산장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능률높은 농기계들과 부속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사회주의인민들의 농기계를 확장하여 농기계장장에서도 농기계를 높이 유통시켜 하여야 합니다.』

올해초 증산군농기계장장소

에서는 방대한 부과임이 있다

나, 수리해야 할 드락도로만 150여대, 요구되는 부속품은 30여종에 수천점,

여기에 제조기, 실증시비기,

암비료성형기를 비롯하여 제

작하여 할 농기계들도 적지

않았다. 군에서 농기계들의 만

가동, 단부하를 보장하는 끊

는 끊는 것은 부속품 생산

과 수리보상사업을 어떻게

파악해 우가는 경제적으로

달려있었다.

자체비만 헉봉원동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두두평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하신 선군사의 구걸구걸을 다시금 깊이 새기었다.

그는 미음속으로 과학기술에

의지한 지향으로 부족물생산

을 무조건 보장할 결심을 굳

겼다. 그는 미음속으로

부족물생산에 희의를 열

고 부족물생산에 희의를 열

자주통일의 근본원칙을 밝혀주신 위대한 업적

역사적인 7·4 공동성명이 발표된 그날로부터 45돐기의 날들이 아로새 거졌다.

뜻깊은 이날을 맞는 우리 거례의 가슴가슴은 한정생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해 온갖 헌고와 심혈을 바치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통일 운동사에 불멸의 업적을 쓰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부시는 그리울과 끊없는 경모의 정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애국워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통일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고장과 심혈을 다바치시었으며 민족의 숙망을 실현하는 길에 한없이 고귀한 업적을 남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정생은 나바와 민족, 조국통일을 위한 위업에 모든것을 바쳐오신 거룩한 한생이었다. 그의 모든 사랑과 활동은 언제나 조국통일에 대한 지향였으며 바로 그 길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을 비롯한 자주통일의 불멸의 대강들이 마련되었다.

오늘도 우리 거례는 주제 6(1972년) 7월 4일 북파남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내외에 업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날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았을 때 없이 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무역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며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함으로써 한 공동성명이 전파를 라고 유퍼져갈 때 온 계획은 기쁨을 금지 못하였다. 해내외의 우리 거례는 걱정에 넘쳐 통일만세를 불렀으

며 세계가 그에 대해 앞을 다루어 보도록 하였다.

하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7·4 공동성명의 발표에 깃든 우리 수령님의 사생과 불멸의 명도업적에 대해 다른 알지 못하였다.

1970년대초 날로 높아가고 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만파쓰민주화투쟁과 조국통일운동으로 하여 궁지에 몰린 미국과 피의통치배들은 『두개 조선』을 영구화하기 위한 응모를 구미었다.

이러한 정세속에서 깃길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제 6(1971년) 8월 남조선의 여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 사람과 아울러 견Hugh을 용의가 있다는 데에는 부담감과 함께 이를 위한 응모를 구미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 3대원칙은 이렇게

남이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으며 나리를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끌어나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일찍부터 구상하여 오신 조국통일원칙들을 한조향한조조직명체를 『국제화 조국통일원칙』 등으로 기록한 역사의 새로운 문기집을 등으로 설명해주시었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 경제적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더없이 정당한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은 이렇게

제시되었다.

구체구체마다에 애국애족의 뜻과 의지가 차지되는 너도도 광명생대한 조국통일원칙에 걸친 남족대표는 거듭자리에서 일어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족주진 조국통일 3대원칙에 걸친으로 친동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통일의 근기로 삼겠다고 다짐하였다.

아버지이수령님께서는 이번에 북파남 사이에 합의된 조국통일 3대원칙은 원체 조선민족이 공동으로 실현하여야 할 통일강령으로 되는 것인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좋겠다고 교시하였다.

당회는 새벽녘에 애를 냈다. 어버이이수령님께서는 이토록 한밤을 지새우시며 민족공동의 통일대장을 펼치시며 조국통일 운동발전의 획기적인 국면을 마련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활동하여 어려운 바를 물려는 그에게 민족분열을 퇴시킨다면 우리 민족은 두개의 민족으로 영원히 갈라질 수 있다고 하시면서

서 우리 그것을 허용할 수 없으며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통일문제 해결의 기초로

제시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명도가 있었기에 주제 6(1972년) 7월 4일 북파남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업적을 발표할 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옮겨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라고, 쟁방이 합의하여 새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북파

남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을 『국제화 조국통일의 거보』, 『민족분열의 비극에 흥미진진한 조국통일원칙들을 한조향한조조직명체를 『국제화 조국통일원칙』 등으로 기록한 역사의 새로운 문기집을 등으로 설명해주시었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 경제적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조국통일의 세세대를 점진하였다.

7·4 공동성명의 발표는 온 거례에

제조국통일의 희망과 약관을 한가득 차지하고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가치마다 전진하는 조국통일 운동

대단결의 가슴속에 자주통일의 억센 기동을 세워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분열의 불멸의 기치로 내세우시고 싶은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

7·4 공동성명의 밤으로 험난한 수령님의 세운 특별한 청탁에 헌신하는